

“개신문 당당하게 나선다” 막판 굳히기

여수엑스포 결정 D-1

파리=홍행기기자

전남 발전의 속인이자 한국 경제 재도약의 디딤돌이 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련기사 3면>
 세계박람회기구(BIE)는 26일 오후 7시(프랑스 현지 시각·한국시각 27일 새벽 3시), 파리 '팔레 데 콩그레'에서 제142차 총회를 열고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날 총회에서 140개 BIE 회원국 대표들은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신청한 한국 여수와 모로코의 탕헤르, 폴란드 브로츠와프를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실시,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
 1차 투표에서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한 국가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국가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1표라도 더 많은 국가가 이기게 된다. BIE 총회 및 투표 진행 상황은 KBS·MBC·SBS·YTN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한국 대표단은 투표에 앞서 26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6시부터 30분간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BIE회원국 대표들에게 '여수가 박람회를 유치해야 하는 이유와 타당성'을 마지막으로 호소하게 된다.
 파리 현지에서 BIE 대표단을 상대로 지지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한민국 대표단은 25일 그동안의 유치 활동에 대한 최종 점검을 벌이는 등 승리를 굳히기 위한 마무리에 들어갔다.

redplan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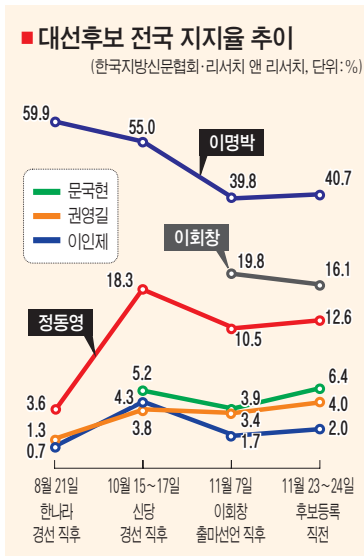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앞두고 지난 2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 각국 BIE대표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광주·전남사건기자단

李 40.7% 독주... 曁 16.1%, 鄭 12.6%

지방신문협회 대선 5차 공동 여론조사

23일 앞으로 다가온 17대 대선 후보 전국 지지율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40.7%의 지지율을 여전히 선두를 달리며 16.1%와 12.6%의 지지를 각각 얻은 무소속 이회창, 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함께 '1강(強) 2중(中)'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설 4-5면>
 'BBK 추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경준씨의 '이명박 후보 연루' 주장과 이 후보측 반박 중 김씨의 주장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이명박 후보 지지자 3명 중 2명은 BBK 연루설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계속 지지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여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과 '아니다'는 의견이 팽팽

하게 맞선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선 후보 지지율에선 정동영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는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전국 9개 유력 지방일간지가 대선 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 23~24일 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천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5차 대선 공동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오늘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40.7%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꼽았고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16.1%, 정동영 통합민주당 후보는 12.6%를 각각 얻었다. 그 뒤를 이어 문



국영 창조한국당 후보 6.4%,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4.0%, 이인제 민주당 후보 2.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는 정동영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대전에서는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BBK 추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경준 전 대표의 '이명박 후보 연루' 주장과 이 후보측의 '관련 없다'는 반박 중 어느 주장을 신뢰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김씨 주장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38.4%로 '이 후보의 반박을 신뢰한다' 25.3%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후보 연루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후보 지지율의 66.8%는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지지하지 않겠다'는 24.4%에 그쳤다. 지지철회 의사를 갖고 있는 이 후보 지지율 가운데 45.4%는 이회창 후보를, 23.3%는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2면으로 계속>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후보등록 첫날 9명 접수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정동영 통합민주당 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이인제 민주당 후보, 심대평 국민중심당 후보,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등 총 9명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관련기사 6·7면>
 26일에는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비롯, 국민선택 장성민, 국민연대 이수성, 무소속 강준태 후보 등이 추가 등록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

유형양행 창학 57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ju.ac.kr
 062-220-0111 ~ 0112
 유한대학교
 http://www.yuhan.ac.kr
 062-220-0111 ~ 0112

社告

지방의 선택! 희망 2007

대선 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17대 대통령 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21세기 대한민국호의 운명을 책임질 국가 최고지도자를 뽑는 선거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선정국은 각종 검증 공방, 후보간 단일화 여부 등으로 너무 어수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일보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로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공동 취재 네트워크를 구성한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전국 9개 유력 지방지의 공동으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지역별 민심동향 및 판세 분석은 물론 투표·개표 결과까지 대선의 전 과정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대선 보도 원칙 마련

선거 보도의 생명인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광주일보는 '대선 보도준칙'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권자 중심의 취재 보도 ▲정당·후보자별 정책 집중보도 ▲특색선전·지역주의 조장 발언 보도 지양 ▲균형 있는 공정보도, 정확한 정보 제공 ▲지방분권·균형발전 추구 ▲선거부정 철저 감시 등 6가지입니다.

대선후보 초청 공동 토론회

한국지방신문협회의 공동으로 유력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지역 대표신문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토론회의 질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대선 공동 여론조사 실시

지난 6월부터 5차례 실시해온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공동 대선 여론조사 선거법이 규정한 여론조사 보도 최종일 전까지 수시로 실시, 유권자들이 대선의 흐름을 읽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별 동향분석 및 판세 보도

대선의 흐름을 정확히 살펴볼 수 있도록 각 지역 대표 신문 기자들이 직접 대선 현장을 발로 뛰어 만든 '대선 민심기행'과 각 지역별 판세분석 등을 수시로 보도합니다.

메니페스토 정책선거 유도

이번 선거에서는 이번 및 검증 공방이 치열해 후보자의 정책 공약이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공약 비교와 검증 등에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겠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제보 접수

불·탈법 선거운동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구시대적 유행으로 유권자들이 나서 근절시켜야 합니다. 제보받은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취재를 거쳐 공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제보 전화는 광주일보 정치부 (062)220-0611, 220-0612.

대선 특별취재반 및 전국 공동취재반 가동

공약 검증, 이슈 추적 등을 위해 정치부, 사회1부, 사회2부, 서울취재팀, 사진부 등 5개 부서 기자들로 '17대 대선 특별취재반'을 가동합니다. 또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 9개 일간지 공동취재반과 함께 전국에서 펼쳐지는 후보와 유권자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내 대선 정국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光州日報社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팀 : 902-0100
 "만약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콘택 골드

늦기전에!

초기감기는 시간과의 싸움

감기는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걸렸구나 생각되면 콘택골드! 감기는 초기에, 늦기전에 콘택골드입니다.

초기 감기약 - 콘택골드

독한경로 소비자 상담실 080-020-1188(주말·휴일) / 광주 (062)367-3000 / 대구 (053)72-0505 / 서울 (02)627-0833 / 부산 (051)62-4270